

李 相 奉 教授指導
碩士學位 請求論文

茶生活이 軍將兵들의 精神戰力에
미치는 효과 연구

2004

誠信女子大學校 文化産業大學院

文化産業學科 禮節茶道學專攻

全 鍾 壽

論文概要

군의 존재의의는 유사시 적과 싸워 승리를 쟁취하는데 있으며 또한 승리를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맡겨진 임무를 기필코 완수해야만 하는 특성이 있다. 그러므로 군은 유사시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적과도 싸워 이길 수 있는 장병을 육성하기 위하여 기존의 정신교육을 강화하고 철저한 군 기강 확립과 아울러 강인한 교육훈련을 통해 전투력을 극대화시켜 강한 군대를 육성하고자 하는 노력을 경주해 오고 있다.

전투력은 크게 유형전력과 무형전력으로 나눌 수 있는데 유형전력은 병력, 무기, 장비, 물자 등과 같이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형체를 가진 전투능력이며, 무형전력은 군인이 전투에서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 인간으로서 발휘할 수 있는 육체적, 정신적 능력과 내재적 가치가 결합된 총화로, 형태는 없으나 분명히 그 실체와 가치가 존재하는 힘이다.

무형전력의 핵심인 정신전력은 모든 장병이 지휘관을 중심으로 투철한 군인정신, 엄정한 군기, 충천된 사기, 공고화된 단결로 부여된 임무를 능동적으로 완수할 수 있는 조직화된 전투의지력으로 정의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군 장병의 정신전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군 부대 장병들에게 다도교육을 통한 차 생활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문제는 '군 장병들을 대상으로 다도교육을 실시한 결과 정신전력에 차이가 있는가?, 다도교육을 받은 장병 집단 중에서 집단의 특성에 따라 정신전력에 차이가 있는가?'로 이러한 연구조사를 위해서 국방부에서 제작한 정신전력 측정 설

문지를 활용하여 연구자가 근무하고 있는 부대 장병 60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실험연구를 하였다.

실험집단에게는 1회 1시간씩 8회에 걸쳐 총 8시간 동안 다도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이 끝난 후 연구병사 60명을 대상으로 사후검사를 실시하여 t-검정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다도교육을 받은 장병집단이 받지 않은 장병집단보다 정신전력 강화에 더 효과적이다.

2. 다도교육을 받은 장병집단 중에서 전투병 집단이 비전투병인 행정병 집단보다 정신전력 강화에 더 효과적이었다. 따라서 다도교육을 통한 차 생활이 전투병 장병들의 정신전력을 더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한다.

1. 군부대 장병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다도교육과 병사들에게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다도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가 필요하다.

2. 군에서 체험한 경험은 평생 잊지 않고 기억되듯이 군 생활 중 접한 한 잔의 차 맛은 전역 후에도 차를 애용하고 즐길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우리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군부대 장병이 차 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 일반 사회 차 문화 단체와 차인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이 요구된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 론	1
1. 연구의 목적	1
2. 연구의 실제	5
II. 이론적 배경	6
1. 정신전력	6
가. 정신전력의 본질	6
나. 정신전력 지도목표	12
다. 정신전력 구성요소와 정신전력 강화방안	13
2. 역사를 통해 본 군인의 차생활	23
3. 차생활의 약리적 효능과 정신적 효과	29
III. 연구방법	35
1. 가 설	35
2. 연구대상	35
3. 실험설계	36
4. 측정도구	37
5. 연구절차	38
6. 자료 분석 방법	39

IV. 연구결과 및 논의	40
1. 결과 및 해석	40
2. 논의	44
V. 결론 및 제언	45

參 考 文 獻

ABSTRACT

부 록

표 목 차

<표 2-1> 정신전력 육성분야	9
<표 2-2> 정신전력 육성체계	11
<표 2-3> 정신전력 구성요소 형성의 특성	13
<표 2-4> 정신전력 강화방안	21
<표 3-1> 연구대상	36
<표 3-2> 실험 설계	36
<표 3-3> 신뢰도	37
<표 3-4> 다도교육 프로그램	38
<표 4-1> 조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41
<표 4-2> 집단별 정신전력 사전 검사 결과	42
<표 4-3> 집단별 정신전력 사후 검사 결과	43
<표 4-4> 다도교육을 받은 집단 특성별 사후 검사 결과	43

I. 서론

1. 연구의 목적

인류의 모든 집단은 생존과 번영을 그 목표로 하고 있다. 국가에 있어서 생존이 국방이라면, 번영은 문화와 국민 삶의 질적 향상이다.

개인이나 국가에서 번영이 없는 삶은 희망이 단절된 것이며, 희망이 없는 삶은 곧 비극이다. 번영이 없는 생존이 희망이 없는 비극이라면 생존이 없는 번영은 근본적으로 존재할 수조차도 없다는 것이다.

세계 역사를 돌아볼 때, 안보를 중요시 하고 강한 군사력을 육성한 나라는 크게 번영을 구가하고 세계를 지배하였으나, 안보와 국방을 소홀히 한 나라는 국민에게 많은 시련과 고통을 안겨 주었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국가 자체가 소멸되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우리의 안보현실을 고려해볼 때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불변한 가운데 북한 핵문제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고, 한국방위의 한 축인 주한미군의 재배치까지 거론되고 있어 우리 스스로 전쟁을 억제하고 국가를 방위할 수 있는 강한 군사력 건설은 미래지향적인 생존의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군사력은 크게 유형전력과 무형전력으로 나눌 수 있고, 유형전력은 병력·무기·장비·물자 등과 같이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형체를 가진 전투능력이며, 무형전력은 군인이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 인간으로서 발휘할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 능력과 내재적 가치가 결합된 총화로 형태는 없으나 분명히 그 실체와 가치가 존재하는 힘이다.

무형전력은 전투능력인 기술전력, 운용전력, 그리고 전투의지라 할 수 있는 정신전력의 3대 요소로 구분된다. 군사력 증강을 하려면 유형전력과 무형전력을 함께 증강시켜야 되지만 무기·장비·병력 등의 유형전력은 국내외적 정치상황, 경제력, 국민정서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하여 제한을 받는다. 그러나 무형전력인 정신전력 증강에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 물론 정치의 불안정, 국민의 가치관 혼란, 유형전력에 기인하는 모든 요인으로부터 간접적인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정신전력은 무한대로 육성발전 시킬 수 있다는 특성을 갖는다.¹⁾

특히 군대는 일반사회의 조직과는 다른 특수조직으로서 조직의 목표달성을 위해 장병 개개인의 본능적 욕구를 억제하고 인간의 최고의 가치라고 할 수 있는 생명까지도 자발적으로 희생할 수 있는 가치관을 확립시켜야 하기에 일반사회에 있어서의 가치·태도교육이 도덕적으로 완성된 인간을 만드는데 있다고 한다면, 군에서의 정신전력 함양의 목표는 극한 상황에서는 목숨을 담보로 한 최후의 희생을 요구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정신전력은 모든 장병이 지휘관을 중심으로 굳게 단결하여 드높은 사기와 확고한 신념으로 부대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조직화된 무형전력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精神戰力은 “信念鼓吹活動, 士氣昂揚活動, 團結強化活動, 軍氣強化活動 등을 통하여 함양되며, 특히 신념고취활동은 정신교육으로 육성된다.”²⁾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개인의식의 긍정적 변화를 유도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일일정신교육과 국가관·통일안보관 및 군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윤리관을 심화시키기 위한 주간정신교육, 부대단결과 심층적 이해가 필요한 주요 안보현안 문제에 대한 신념화를 위한 반기집중정신교육을 체계적으로 시행하여 무형전력인

1) 「정신전력지도지침서」, 국방부, 1997, pp. 24-27.

2) 박균열, 「공동체의식을 위한 가치교육방법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대학원, 1994, p.65.

정신전력을 강화하고 있다.

많은 학자들은 21세기를 '문화의 시대'라 하며 지식 정보화 체계와 정신세계가 어우러진 가치 중심의 문화야말로 미래사회의 중심축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 육군은 이러한 가치 중심의 문화에 대한 미래적 의미를 중시하여 경쟁력 있고 생존력이 높은 강한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충성, 용기, 책임, 존중, 창의 의 5대 가치관을 설정하여 생활화 하면서 “爲國獻身”을 「장교단 정신」으로 선정하는 등 「21세기 선진정예 육군 육성」을 목표로 새로운 가치 중심의 문화창 달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³⁾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고도산업화, 정보화 및 선진자본주의를 지향하는 과정에서 인륜가치의 파괴, 물질만능사회, 한탕주의 팽배 등 올바른 가치관을 혼드는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사회환경 속에서 생활해 온 젊은 신세대 병사들이 군에 입대하게 됨으로써, 군 또한 사회병리현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가정 또는 사회에서 각자의 성격과 개성에 따라 자유롭게 사고하고 행동하던 장병들이 급격한 환경변화를 겪으면서 엄격한 규율을 가진 단체생활에 익숙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자아의 혼란, 부대원 간의 갈등, 개인적 문제 등으로 인한 갖가지 군복무 부적응 사례들이 빈발하고 있다.

군복무 부적응은 불평불만, 불안, 공포, 분노, 심리적 혼란, 무력감 등의 정서적 반응으로 나타나 결국 폭행, 자해, 군무이탈(탈영), 자살 등의 크고 작은 군기사고로 이어져 심지어는 목숨을 잃는 경우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어 군부대의 규율을 손상시키고 군의 정신전력을 약화시키고 있다.⁴⁾

우리 민족의 오랜 역사를 돌이켜보면 차생활을 통하여 공경의 정신을 기르고

3) 2004년 장교단 정신실천지침서, 육군본부, 2004, pp. 65~66.

4) 박춘근, 「장병심리상담을 위한 불교적 접근」,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대학원, 2001, p. 1.

건강과 생활의 멋을 즐기며 차원 높은 차문화를 승화시켜왔다.

신라시대 차문화의 주축이었던 화랑들은 수련과 풍류의 도를 익히는 방편으로 차를 사용하였으며 고려, 조선시대의 선비들도 자신의 서실에 知己를 모시고 차를 즐긴다거나, 혼자서 분위기와 차 맛을 음미하는 가운데 수신을 하면서 음다생활(飲茶生活)을 즐겨왔다.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차 생활은 고도의 정신문화를 닦는 지침이 되어왔으며, 생활속의 禮道이었다.

최근 고도로 전문화된 산업사회 속에서 심리적 긴장, 불안, 초조 등을 보편적으로 느끼고 있는 현대인에게 차는 정신을 건강하게 하고 육체의 피로를 해소시켜 주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어느 조직보다 강압적 통제와 엄격한 규율로 정신적 긴장이 조성되는 군조직 속에서 급격한 환경변화로 군복무에 적응하지 못하는 20세 전후의 소위 N(Net)세대라고 불리는 장병들에게 다른 어떤 곳보다 내적으로 장병 개개인의 정서함양과 인격을 도야할 수 있는 차생활이 매우 필요할 것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차생활은 군에서 지향하는 가치지향 중심의 문화 형성과 조상들의 전통문화의 계승이라는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 여겨진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가안보의 최후의 보루로서 국가를 수호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절대절명의 사명을 완수해야 하는 군장병의 정신전력 향상을 위한 한 방안으로 차생활을 통한 다도교육이 군 정신전력 강화에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해 보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연구의 실제

본 연구는 차생활을 통한 차문화가 무형전력인 군 장병의 정신전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를 살펴보았다.

연구방법은 실험연구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연구대상은 육군 ○○부대 장병 3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측정도구는 국방부에서 작성된 정신전력 측정 설문지를 이용하였고, 회수된 자료는 SPSS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분석하였다.

논문은 모두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목적, 연구 실제와 제한점과 논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설명하였고,

제2장에서는 차생활과 군장병 정신전력에 대한 이론적 배경으로 정신전력의 본질, 정신전력 지도목표, 정신전력 구성요소와 강화방안, 차문화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았다.

제3장에서는 차생활이 군장병 정신전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를 위한 조사대상자 선정, 설문지 구성,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을 제시하였고,

제4장에서는 연구 결과와 논의를 제시하였으며,

제5장 결론에서는 연구문제에 대한 연구결과의 요약과 군내 차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방안 제시를 하였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은 육군 ○○부대 일부 장병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전체 장병들에게 일반화하여 해석하는데 무리가 있다.

둘째, 다도교육은 차의 특성, 효능, 차의 역사 및 행다실습으로 국한하였다.

셋째, 정신전력을 한 부대원의 군인정신, 군기, 단결력, 사기의 4영역의 개념으로 국한시켰다.

Ⅱ. 이론적 배경

1. 정신전력

가. 정신전력의 본질

(1) 정신전력 개념

“정신전력이란 모든 장병이 지휘관을 중심으로 투철한 군인정신, 엄정한 군기, 충전된 사기, 공고화된 단결로 부여된 임무를 능동적으로 완수할 수 있는 조직화된 전투 의지력이다.”⁵⁾라는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지휘관과 부하가 하나 되는 전투 의지력’인 것이다.

정신전력이란 용어가 처음으로 사용된 것은 1973년 2월 20일 국방부 연두순사에서 故 박정희 대통령이 “전쟁의 승패는 장비의 우월보다도 정신전력에 좌우되므로 모든 부대의 정신전력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한 데서 비롯되었다.⁶⁾ 이 시대에는 시기적으로 월남전에서 미군이 승리하지 못한 채 전쟁이 종결되고, 곧이어 월남이 공산화되자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정신전력의 중요성을 더욱더 강조하였으며 국군정신전력학교의 창설과 각급 체대 정훈장교 계급을 상향 조정하였다.⁷⁾ 그 후 1975년 10월 29일 국방부 내에 정신전력 강화 연

5) 「정신전력 지도지침서」, 국방부, 1997, p.31.

6) 김종찬, “군 정신전력 구성요소에 관한 실증적 분석,” 「정신전력 연구」, 제 10호(국군정신전력학교, 1989), pp. 196-197의 내용을 주로 참고하였음.

7) 지금과는 달리 당시의 정훈장교 계급은 대대급에 대위, 연대급에 소령, 사단급에 중령이

구위원회가 설치되었는데, 1986년 국군정신전력학교에서 발간된 '군 정신전력 개념 연구'에서는 정신전력의 개념을 '국가 차원'의 광의적인 시각과 '군사 차원'의 협의의 시각에서 파악했다. 광의의 개념으로는 '국민정신을 바탕으로 발휘되는 국민투쟁의지의 총화', 협의의 개념으로 '전투의지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승리를 쟁취하고자 하는 장병들의 단합된 무형적인 힘'으로 정의하고 있다.⁸⁾ 또한 1997년 국방부에서 발행한 정신전력 지도지침서에서는 "모든 장병들이 투철한 군인정신의 바탕 위에 지휘관을 중심으로 굳게 뭉쳐 부여된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는 조직화된 의지력"으로 정의하고 있다.

군대는 그 속성상 장병 개개인의 정신이 아무리 강인하다 해도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거나 그릇된 방향으로 행동이 나타나게 된다면, 그것은 만용이나 범죄행위로 나타날 수 있으며 전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전력이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장병 각 개인의 정신을 집단정신으로 규합·승화시켜 필요한 시간 및 장소에서 부대목표 달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육성해야한다.

(2) 정신전력의 특성

특정부대의 장병이 투철한 군인정신을 갖추고 지휘관을 핵심으로 굳게 뭉쳐 부대 목표달성을 위해 자발적이고 의욕적으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은 부대의 정신전력이 강하기 때문이다.

전력증강의 경우 무기, 장비, 병력 등의 유형전력은 국내외적 정치상황, 경제력, 국민정서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하여 제한을 받는다.

그러나 무형전력인 정신전력 증강에는 제한이 없다. 물론 정치적 불안정, 국민

보직됨으로써 제대별 일반참모와 동급 위치에서 정신전력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음.

8) 「군 정신전력」, 국군정신전력학교, 1986 p. 102.

적 가치관의 혼란, 유형전력에 기인하는 제 요인으로부터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정신전력은 무한대로 육성, 발전시킬 수 있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인간의지를 바탕으로 하는 정신전력은 심리적 요인과 환경에 따라서 수시로 변화될 수 있는 유동의 가변적 성질을 갖는다. 따라서 정신전력을 고도의 수준으로 유지·강화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치밀하고 지속적인 관리가 유지되어야 한다.

정신전력에 있어 개인적 차원의 군인정신과 집단적 차원의 군기, 사기, 단결 등은 그 자체만으로는 전력으로서의 구실을 할 수 없으며, 다른 요소와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전력으로 형성되고 유지되며 어떤 하나의 요소라도 약화되면 동시에 정신전력 자체가 약화된다. 따라서 정신전력 강화는 군인정신, 군기, 사기, 단결 등 여러 가지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관리·유지할 때에만 가능함을 알 수 있다.

물자, 장비 등 유형전력은 사람이 이를 사용할 때만 성능을 발휘할 수 있으며, 무형전력에서도 기술전력이나 운용전력은 숙달과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 외에 행위를 유도하기 위하여 계속적인 당위성을 부여해 나가야 하는 가치지향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정신전력을 강화·유지함에 있어서는 정신의 힘을 최고도로 발휘케 하는 동시에, 그 힘을 올바른 방향으로 발휘하게 하는 가치지향적 관리가 필요하다.

(3) 정신전력 육성체계

정신전력은 모든 장병이 지휘관을 중심으로 투철한 군인정신, 엄정한 군기, 충천된 사기, 공고화된 단결과 부여된 임무를 능동적으로 완수할 수 있는 조직화된 의지력이다. 즉 정신전력은 생활교육, 정신교육, 각종 훈련 등을 통하여 개별성을 지니고 있는 각개 장병의 군인정신을 부대 전체의 집단정신으로 조직화함으로써

달성되는 것이다. 따라서 정신전력 육성을 위한 제반 노력의 핵심은 군인정신의 전력화를 통한 정신전력의 극대화에 목표를 두게 된다.

개인적 차원에 속하는 군인정신 함양과 집단적 차원에 속하는 부대 전력화는 상호작용을 통하여 상승효과를 가져온다. 장병이 투철한 군인정신으로 무장되면 집단조직인 부대는 군기, 사기, 단결 등이 강화되고 반대로 군기, 사기 단결 등이 증진되고 유지되면 각개 장병의 군인정신도 함양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군인정신의 집단 전력화를 도모하는 정신전력의 성패는 지휘관의 지휘통솔에 의해서 결정되어 진다.

<표 2-1> 정신전력 육성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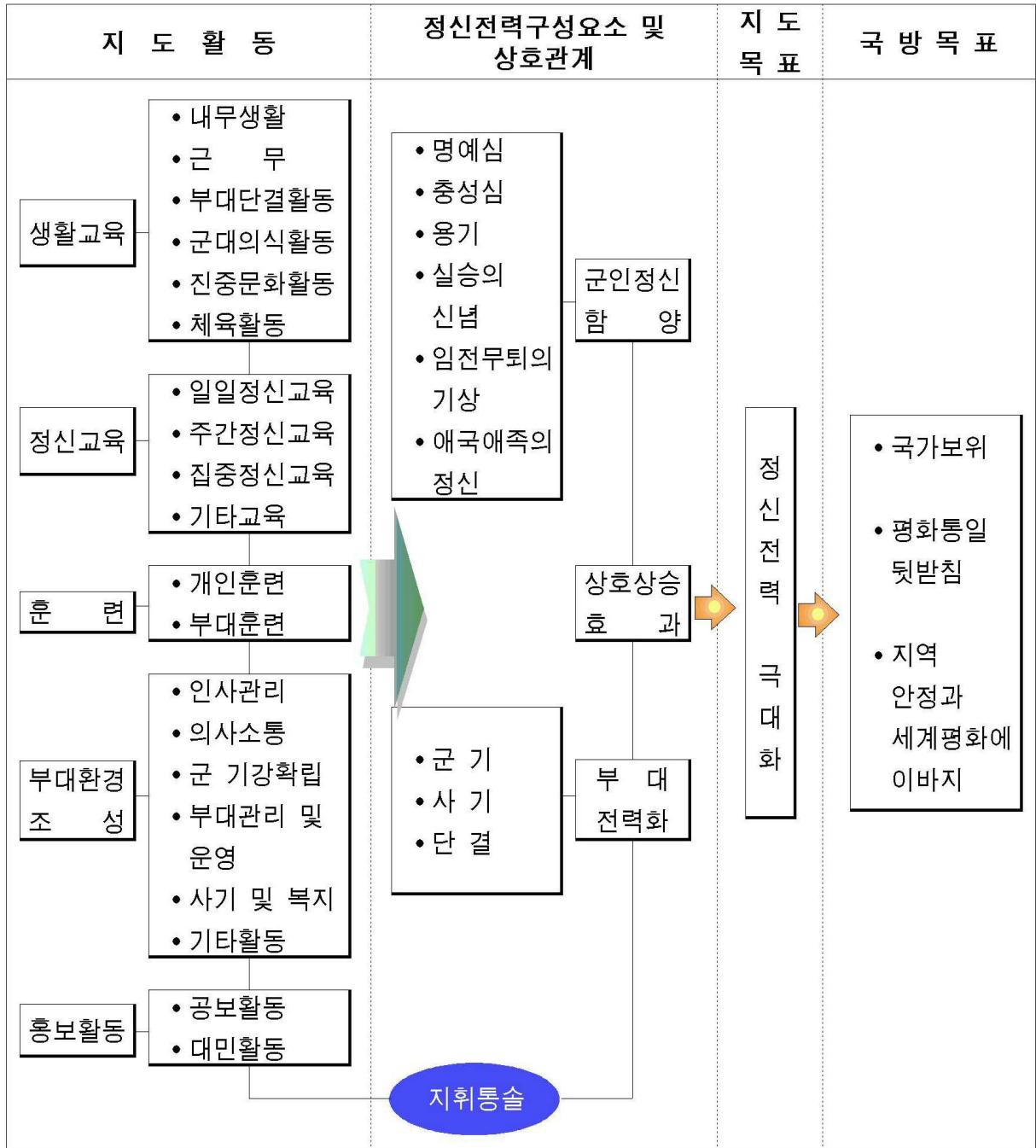
- 생활교육 : 내무생활, 군무, 부대단결활동, 군대의식활동, 진중문화활동, 체육활동 등의 병영생활
- 정신교육 : 일일정신교육, 주간정신교육, 반기집중정신교육, 기타 정신교육
- 훈 련 : 개인 및 부대훈련
- 부대환경 조성 : 인사관리, 의사소통, 군기강 확립, 부대관리 및 운영
- 홍보활동 : 공보 및 대민활동

지휘관은 지휘통솔을 통하여 위와 같은 분야를 올바로 지도함으로써, 장병 개인의 군인정신을 함양하고 이를 부대전력화하여 정신전력을 극대화함으로써 국방목표 달성에 기여하게 된다.⁹⁾

정신전력 육성 과정을 체계화 하면 다음과 같다

9) 전계서, pp. 31-36.

<표 2-2> 정신전력 육성체계



(출처 : 정신전력 지도 지침서)

나. 정신전력 지도목표

군은 사상적 대결에서 승리는 물론, 적을 압도할 수 있는 정신전력 육성을 위해 장병 정신전력 지도목표를 올바르게 설정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정신전력의 육성 방향은 필승의 정예국군을 양성함으로써 국방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정신전력의 지도 목표는 정신전력 극대화에 두고 이를 위해 어떠한 방향으로 정신전력을 강화시켜야 하는가의 문제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정신전력은 모든 장병이 지휘관을 중심으로 투철한 군인정신, 엄정한 군기, 충천된 사기, 공고화된 단결로 부여된 임무를 능동적으로 완수할 수 있는 조직화된 전투의지력이다. 따라서 정신전력의 지도 목표는 각개 장병의 군인정신을 함양하고 이를 군기, 사기, 단결로 연계시켜 부대전력화 시킴으로써 정신전력을 극대화하는데 두어야 할 것이다. 각개 군인이 아무리 훌륭한 정신을 지녔다고 하더라도 이들의 정신을 집단의 힘, 즉 조직화되고 통합된 힘으로 승화시키지 않으면 전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투철한 군인정신을 부대전력으로 승화시키기 위해서는 일사불란한 지휘체계로, 일률적인 행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엄정한 군기를 유지하며, 장병들의 자발적 의욕을 촉발케 함으로써 사기를 증진시키고, 부대원 상호간의 이해 증진과 전우애로써 각 개인의 정신을 집단적으로 규합시켜 단결을 강화해야 한다.

이와 같이 볼 때, 개인적 차원에서 명예심, 충성심, 용기, 필승의 신념, 임전무퇴의 기상, 애국애족의 정신과 집단적 차원에서 군기, 사기, 단결 등은 정신전력의 핵심적 구성요소인 동시에 발현요소이며, 「정신전력 극대화」는 각급 지휘관이 지휘통솔을 통해 개별적 차원의 군인정신과 집단적 차원의 군기, 사기 단결을 동시에 관리함으로써 가능해진다.

지휘통솔이란 ‘부여된 책임과 권한을 바탕으로 부대의 목표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부하에게 목적 및 방향제시, 동기부여를 통하여 모든 노력을 부대 목표에 집중시키는 활동 및 과정’이다. 따라서 정신전력 극대화에 가장 직접적 영향을 주는 것이 지휘통솔임을 알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정신전력 지도활동 자체가 곧 지휘통솔이라고 할 수 있는 만큼 지휘통솔은 정신전력의 수준을 좌우하는 절대적 요인으로 작용한다.¹⁰⁾

다. 정신전력 구성요소와 정신전력 강화방안¹¹⁾

정신전력 구성요소는 개인적인 차원의 명예심, 충성심, 용기, 필승의 신념, 임전무퇴의 기상, 애국애족 정신 등 군인정신의 요소와 부대집단적인 차원에서 군기, 사기, 단결 등이 있다.

<표 2-3> 정신전력 구성요소 형성의 특성

- 통솔자, 부하, 상황, 커뮤니케이션 등 복합적 요인들에 의해서 정신전력 요소들이 발휘된다.
- 똑같은 조건일지라도 정신전력은 지휘관의 능력에 따라 결과는 다르게 나타난다.
- 정신전력 구성요소들은 독립된 영역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다.
- 정신전력은 개인적 요소와 집단적 요소가 결합되어 나타나며 특정요소만을 독립적으로 배양하기 어렵다.

10) 전계서, pp. 38-39.

11) 전계서, pp. 40-45.

(1) 군인정신 함양

군인정신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러므로 군인은 명예를 존중하고 투철한 충성심, 진정한 용기, 필승의 신념, 임전무퇴의 기상과 죽음을 무릅쓰고 책임을 완수하는 숭고한 애국애족의 정신을 굳게 지녀야 한다.

(가) 명예심

명예란 외형적으로는 한 인간의 업적이나 직능 및 지위에 대하여 사회로부터 주어지는 평가와 인정이며 칭찬과 존경이고, 내면적으로는 자신이 수행한 일의 성과에 대하여 스스로 만족과 보람을 느끼는 심리적 상태다.

그러므로 진정한 명예는 외형과 내면의 양자가 갖추어진 상태로서 외적측면을 중시하는 공명심과 구분되어야 한다.

공명심은 업적의 가치에 자족함이 없이 자기의 명성을 밖으로 나타내려는 면만 중시하므로 과장과 허위에 빠지기 쉽고, 진실한 행동과 태도를 갖지 못한다. 그 결과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감이 희박해질 뿐만 아니라 주위에 아부하거나 영합하려는 비열한 경향으로 흐르게 된다.

명예의 핵심은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신의를 지키고, 체면을 존중하며, 부끄러움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군인에게 있어서 명예심은 온갖 고통과 정신, 의리와 지조를 중요시 하는 행동 등으로 나타나게 된다.

군인 개개인이 참다운 명예심을 가질 때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군인은 언제나 군 전체의 명예를 앞세우는 정신을 가져야 한다.

(나) 충성심

충성이란 충실과 신의를 중히 여기면서 원하는 바에 모든 마음과 힘을 다함을

뜻한다. 충성에서 '충'은 '마음의 중심'을 의미하며, '성'은 '자신이 한 말을 이루는 것'을 의미한다. 즉 충성이란 거짓 없는 참마음으로 주어진 바를 위하여 자기의 몸과 마음을 다하는 것을 의미한다.

충성의 대상으로는 크게는 국가와 민족을 위시하여 자기가 소속한 사회, 단체, 가족 또는 상사, 동료, 부하 등과 같이 상·하·동급의 관계 속에서 다양하게 존재한다. 이중에서도 국가와 민족에 대한 충성이 최고의 가치가 있다. 바꾸어 말하면 충성은 국가와 민족을 위한 애국심, 부대를 위한 애대심, 부모를 위한 효도, 상관을 위한 복종심, 동료를 위한 전우애, 부하를 사랑하는 마음 등으로 다양하게 표출된다.

군인의 충성심은 명령에 따르는 복종심과는 구분되며, 구체적으로 자기의 임무를 사랑하고 그것의 완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마음자세와 행동이다.

복종은 명령을 전제로 하고 있는 타율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반면에, 충성은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으로 자율적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다) 용기

용기란 글자 그대로 용맹스러운 굳센 기운 또는 사물을 겁내지 않는 기개이다. 그러나 용맹스러운 기운이나 겁 없는 기운이라고 하여 참다운 용기라고 할 수 없다. 용기는 이성에 의해 인도되는 심성의 활동적 원기이며, 공포를 느낄 대상과, 그렇지 않을 대상에 대해 올바른 분별이 있고 그 분별력에 준거해서 행동하려는 의지로 만용과 구별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무모와 비겁의 중용이 용기'라고 하였다. 즉 인간의 행동이 분별이 없이 지나치면, 무모 내지는 만용으로 나타나며, 너무나 회피하면 비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

군인에게 필요한 진정한 용기는 절제와 지혜, 그리고 정의에 바탕을 둔 용기,

함부로 날뛰지 않고 시기와 장소 및 대상을 가리는 분별 있는 용기, 명령과 규율의 지배를 받는 용기, 죽음을 무릅쓰고 책임을 완수하려는 용기가 그것이다.

(라) 필승의 신념

신념이란 굳게 믿어 의심치 않는 마음으로서 어떤 행동을 해 나가는 데 있어 마음에 간직하는 자신감 내지 확신을 의미한다. 따라서 필승의 신념이란 승리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다.

신념이 있는 사람은 어떤 행위를 함에 있어서 주저함이 없고, 우유부단하지 않으며, 그리고 꼭 해야 할 일을 당해서 뒤로 물러섬이 없이 뚜렷한 확신을 가지고 초지일관함으로써 불가능한 일도 성공시킬 수 있다.

전장에서 필사의 각오로 용감하게 돌진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살아남게 되는 기적을 낳는 것은 오직 필승의 신념 때문이다.

군인에게 필승의 신념이 강조되는 이유는, 군인으로 하여금 싸움에서 꼭 승리한다고 하는 확고한 믿음과, 자신감을 불려일으킴으로써 주저함이 없고, 우유부단하지 않으며, 죽음을 무릅쓰고 꼭 책임을 완수하겠다는 적극적인 행동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 임전무퇴의 기상

임전무퇴란 '전장에 나아가 물러서지 아니함'이다. 즉 전쟁이나 전투에 임하여 회피하거나 도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임전무퇴의 기상은 전투에서 물러서지 않는다는 정신이다. 어떤 최악의 상황에서도 희생을 각오하고 맡은 바 책임을 다하며, 불굴의 투지로 승리를 쟁취하겠다는 태도다.

전쟁 또는 전투에 임하여야 하는 것이 군인의 최고의 임무다. 전쟁은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생명의 위협이 따르고, 육체적 피로와 고통이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장이다. 전투는 운동경기처럼 연습도 있을 수 없으며, 한번 싸워 적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게 된다는 사생결단의 장이다. 이러한 각종 여건을 극복하고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두려움을 갖지 않는 감투정신과 왕성한 공격정신이 요구된다.

전투에서 승리로 그 존재 가치를 인정받는 것이 군대요, 승리 하나로 민족 앞에 우뚝 서야 하는 것이 군인이다. 따라서 임전무퇴의 기상은 군인정신의 즉, 명예심, 충성심, 용기, 필승의 신념 등의 정신이 승화되어 나타나는 군인정신의 중요한 요소이다.

(바) 애국애족의 정신

애국애족의 정신이란 국가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가짐으로 내 국가, 내 민족, 내 강토를 아끼고, 가꾸고, 지키겠다는 충정이며, 수많은 국난 속에서도 겨레의 생존을 지켜온 민족정신의 기본적 바탕이다. 그러므로 애국애족의 정신은 비단 군인뿐만 아니라 온 겨레가 시공을 초월하여 지녀야 할 원천적 가치 덕목이요, 국가와 민족의 영원한 번영을 위한 전제조건인 것이다.

국가는 국민을 포용하는 거대한 기틀이요 귀의처로써 국가없는 국민이란 있을 수 없듯이 민족이란 혈연으로 맺어진 큰 가족을 떠난 개인은 존재할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참된 애국이란 바로 민족애이며, 민족은 애국의 근원이요, 핵심이다. 즉 애국애족은 별개의 영역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인 것이다.

군인에게 애국애족의 정신이 최고의 가치로서 강조되는 이유는, 피로써 물려받은 이 영광스러운 조국을 어떠한 희생도 무릅쓰고 굳게 지켜, 후손에게 물려 줄 의무와 책임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군인에게 요구되는 애국애족의 정신은 「죽음을 무릅쓰고 책임을 완수하는 정신」이기 때문에 어떤 보상이나 개인적인 명예, 공명을 전제로 해서는 안 된다. 국난극복과정에서 구국투쟁을 전개했던 선열들이 그러했듯이 국가와 민족 앞에 조건없이 피와 담과 목숨까지 바

칠 수 있는 정신자세가 필요한 것이다.

(2) 군인정신의 부대전력화

각급부대 지휘관은 각개 장병의 군인정신을 집단 군인정신으로 전력화 시켜야 한다. 개개인의 군인정신은 군기, 사기, 단결 등 집단적 요소가 뒷받침 될 때 전력화가 되는 것이다.

즉 군인에게 요구되는 가치관을 정립하고, 집단의 규범을 준수하며, 심리적으로 직무에 대한 만족과 적극적인 직무 수행태도를 유발하여, 구성원간 연대의식과 일체감을 형성할 때, 군인정신의 부대전력화가 이루어지게 된다.

장병의 사기가 충천하고 단결이 공고하다 하더라도 규정을 준수하는 마음적 자세가 갖추어져 있지 않다면, 그릇된 방향으로 나가게 될 것이며, 반대로 규정을 준수하고 연대의식을 지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기가 저하되어 있으면 부대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처럼 군기, 사기, 단결 등 부대 전력화의 3요소가 동시에 강화될 때 군인정신의 부대전력화가 되는 것이다.

부대전력화를 위한 구성요소별 특성은 다음과 같다.

(가) 군기

군기는 군의 명령과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취해지는 기율과 질서로서 군대의 생명과 같다. 따라서 군기의 핵심은 명령에 대한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복종에 있다.

명령은 상관이 부하에게 군 목적수행을 위해 발하는 직무상의 지시로 부하는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명령 받은 사항을 신속·정확하게 실행하여야 한다.

명령 발령자는 건전한 판단과 결심하에 적시 적절한 명령을 내려야 하며, 직무와 관계없거나 법규 및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하는 사항이나 자기 권한 밖의 사항을 명령해서는 안 된다. 정당한 명령에 대한 복종은 자발적인 복종이 주가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법규에 의하여 이행을 강요함으로써 부대 임무를 완수하여야 한다.

명령에 대한 자발적인 복종을 유발시키기 위하여 군인은 입대하는 날부터 모든 명령과 규정에 대해 복종하고, 준수하는 것을 습관화 시켜 나가야 한다.

장병 한 개인의 군기 침해는 그 한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소속 부대, 나아가 군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고 정신전력의 약화를 초래하게 된다.

장병 개개인이 명령에 대한 복종, 규칙과 규정의 준수 등으로 군기를 유지하는 것은 질서 유지로 부대목표 달성을 용이하게 하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이익을 주며, 행위자 자신에게도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나) 사기

사기란 집단 구성원들이 업무에 대한 자부심과 만족감을 기초로 집단의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하여 시종일관 끈기있게 노력하는 집단의 역량이다.

이러한 사기는 외면상으로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상태이고 뚜렷이 파악하기 어려운 요소이다. 그러나 파악하기 어렵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며 분명히 군대 강약을 좌우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사기는 결코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라 욕구충족이나 동기유발, 업무의 난이도 등에 따라 수시로 변화되며, 집단 성원의 만족감을 수반하면서 각 개인의 능력 개발 및 부대 임무 수행도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특성이 있다. 즉 사기가 높으면 업무수행도가 높고, 반대로 사기가 떨어지면 업무 수행도가 떨어진다. 대개의 경우 군인은 자기직책에 대한 이해와 자신을 가져야 하며, 굳센 정신력으로

튼튼한 체력을 길러 자진하여 어려움에 임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 직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단결

단결이라 함은 전 부대원이 지휘관과 뜻을 같이하여, 어떠한 상황하에서도 부대목표 달성을 위하여, 모든 역량을 통합 집중할 수 있는 조직의 힘이며, 전쟁의 승리는 오직 단결된 힘에 의해서만 얻을 수 있다.

사기는 개인적 속성으로부터 출발하여 최종적으로 집단의지에 수렴되기 때문에, 부대 공동목표를 달성하고 강한 전투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부대단결이 이루어져야 한다.

단결이 잘 된 집단의 구성원들은 일반적으로 열심히 일하고, 희생하며, 집단의 장점을 찬양할 뿐 아니라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상호간에 의견이 잘 맞는다.

따라서 단결된 부대는 부대원들이 서로 가깝다고 느끼고 부대에 강한 애착을 느끼게 되며 부대원 상호간 전우애를 고양하게 된다.¹²⁾

12) 전게서, pp. 40-55.

(3) 정신전력 강화방안

<표 2-4> 정신전력 강화방안

구 분	강 화 방 안
명예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양시킨다. • 확고한 사생관을 견지시킨다. • 강한 공동체 의식과 희생정신을 생활화시킨다. • 국가보위의 신성한 사명을 주지시킨다.
충성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과 사를 명확히 하여 부대를 지휘통솔 한다. • 공익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한다. • 정직, 신의 등 의로운 행동을 하게 한다. • 준법정신 및 합리주의적 사고를 갖도록 한다. • 상경하애의 정신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한다.
필승의 신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는 정의(正義)이고 적은 불의(不義)의 집단이라는 확고한 의지를 갖도록 한다. • 불타는 적개심으로 적과 싸워 꼭 이기겠다는 투철한 대적관과 사명감을 갖도록 한다. •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도록 한다. • 결단력을 가지고 과감히 실행할 수 있는 자세를 견지토록 한다. • 국가 우선의식과 군 사명의식을 고취한다. • 자신에게 힘을 불어 넣어줄 수 있는 표어나 경구(警句) 등을 좌우명으로 삼게 한다.
임전무퇴의 기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싸움에 임하여 물러서지 않겠다는 강한 감투정신을 견지로 한다. • 전장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맡은 바 임무를 완수하겠다는 강한 책임감을 견지토록 한다. •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죽을 수 있다는 확고한 사생관과 멸사보국(滅私報國)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견지토록 한다.
애국애족 정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여된 임무는 죽음을 무릅쓰고 기필코 완수하겠다는 강한 의지와 프로근성을 갖도록 한다. • 국가의 발전과 민족의 번영을 위해 가깝고 쉬운 일부터 실천하고 행동하는 자세를 갖도록 한다. • 국가와 민족의 생존권 수호를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고 목숨을 걸고 이를 실천할 수 있다는 사생관을 갖도록 한다. • 현실을 직시하는 안목을 갖도록 한다.

구 분	강 화 방 안
군 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령의 존엄성을 인식시키고 자발적인 복종심을 배양한다. • 법규 및 보안교육 등으로 준법정신을 생활화 한다. • 군풍기 단속활동으로 군인의 본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며, 법규 준수의를 배양한다. • 군 부조리 제거활동으로 합리적이고 명량한 복무환경을 조성한다.
사 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무에 대한 만족감을 부여한다. • 부대에 대한 일체감 및 참여의식을 고취시킨다. • 적절한 보상과 원만한 인간관계를 통해 안정감·소속감 및 신뢰심을 고취시킨다. • 부하의 발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해 줌으로써 자기발전의 욕구를 충족시켜 준다. • 튼튼한 체력과 용기, 대담성, 투지력, 극한 상황 극복력 등과 같은 공세적 기질을 배양하여 자신감을 갖도록 한다. • 부대 전투력과 무기 및 장비에 대한 신뢰감 및 자신감을 갖도록 한다. • 업무 수행 후의 성취감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한다.
단 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무생활, 훈련, 군대의식 등으로 협동정신과 희생정신을 함양한다. • 의사사통, 면담, 신상파악, 단결회의 등으로 상경하에 분위기를 조성한다. • 부대원 상호 이해 증진을 통해 전우애를 함양한다. • 부대가(部隊歌) 등 부대상징에 대한 애착심과 일체감을 제고시킨다. • 부대정신을 고양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지휘관이 솔선 수범함으로써 공감대 형성과 애대심, 성취감을 제고시킨다.

(출처 : 정신전력 지도 지침서)

2. 역사를 통해 본 군인의 차생활

(1) 花郎들의 茶生活

신라의 화랑은 전장에 나아가 전사하는 것을 명예롭게 생각하며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목숨을 아끼지 않는 임전무퇴의 武人精神의 표본으로 新羅가 삼국을 통일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화랑의 얼과 정신을 오늘날 이어받아 육사생도 중 리더십이 가장 뛰어나고 智·仁·勇을 두루갖춘 최우수 생도를 대표화랑이라 부르며, 육군사관학교를 옛 화랑 후예의 기상을 닦는 花郎臺라 명명¹³⁾하여 민족의 미래를 이끌어갈 국방과 통일의 역군인 인재를 양성해 오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우리 역사 속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무인(軍人)은 화랑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화랑들이 차를 마셨다는 사실은 여러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가) 경포대와 한송정

화랑의 차문화 유적으로 유명한 한송정은 신라 화랑들이 명산대천을 순례하다 이곳에서 수련을 하며 차를 마시던 곳으로 차인들에게는 신앙처럼 받들어져 오고 있는 곳이다. 강릉 남쪽 寒松亭址 군부대에서 약식으로 지은 정자가 있다. 그곳에는 신라 때부터 내려온 우물(茶井)과 石臼, 차 달이는 돌부뚜막(石籠)으로 유명하다.

경포대와 한송정은 신라 화랑들의 수련장으로 지어진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13) 육군사관학교는 1957년 3월 당시 교장이었던 백남권(白南權) 장군이 국민의 희망을 담은 육군사관학교가 민족적 전통이나 화랑 후예의 기상을 닦는 국방의 요람지로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화랑대'라는 명칭이 적합하다는데 의견을 모아 '화랑대'로 명명하였으며 1958년 5월 31일 조성한 연병장을 '화랑 연병장'으로 명명(육사홈페이지 육사연혁)

축조 연대는 알 수 없다. 다만 사선(四仙), 즉 영랑(永郎)·술랑(述郎)·남석행(南石行)·안상(安詳) 등 네 국선(國仙)의 전성기인 31대 신문왕 전후로 추정되고 있다.

강릉의 경포대 및 한송정에는 사선의 무리가 차를 끓이는 데 사용했던 다구가 고려 말까지 전해지고 있었다. 이곡¹⁴⁾이 1394년에 동해안 지방을 여행하고 쓴 기행문인 東遊記에는 사선의茶具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경포대에는 옛날 국선의 석조가 있는데, 대개 차를 달이는 도구다. 한송정 역시 사선이 노닐던 곳인데, 고을 사람이 유상자(遊賞者)가 많은 것을 귀찮게 여겨 집을 철거해 버렸고, 소나무 또한 들불에 타버렸다. 다만 석조 및 석지(石池), 그리고 두 개의 석정(石井)이 그 곁에 남아있을 뿐인데, 역시 사선의 다구다.¹⁵⁾

현재 한송정과 경포대에 남아있는 연단석구(煉丹石臼)나 연약석구(煉藥石臼)는 화랑들이 차를 끓일 때 사용했던 것으로 알려져 당시 화랑들이 차생활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 금장대 화랑의 임신서기석

울주군(蔚州郡) 두서면(斗西面) 내과리(內瓦里), 화랑의 수도장인 열박산(咽薄山)이 발원지인 형산강(兄山江) 강변에 조심스레 솟아오른 강언덕이 있다. 남쪽으로는 경주 남산이, 동쪽에는 소금강한, 동남쪽 멀리로 토함산이, 서남쪽으로는 선

14) 이곡(12081351)은 1332년 고려의 향시에 급제하고, 이듬해에는 원나라의 회시와 전시에 급제하여 승사랑 한림국사원 검열관을 제수받았다. 그 뒤 벼슬은 원나라의 봉의대부 정동행중서성 좌우사랑중에 올랐으며, 고려의 광정대부 도첨의찬성사 우문관대제학 감춘추관상호군에 올랐다.

15) 이곡(李穀), 「東遊記」, 「東文選」卷 71.

도산(仙道山), 북쪽으로는 구미산(龜尾山)이 에워싼 그 한가운데 불쑥 솟아오른 곳에 금장대가 자리하고 있다.

금장대에도 가장 중심자리 높이 1미터가량 초석이 있는 이곳에서 유명한 화랑의 임신서기석(壬申誓記石)이 출토됐다. 게다가 이 부근에서 차그릇으로 추정되는 20여 점의 신라토기가 발견됐다.

임신서기석에는 신라의 두 화랑이 학문을 익힐 것을 서약하고 만약 나라에 큰 일이 있을 때는 결사보국(決死報國) 할 것을 거듭 맹세한 내용이 새겨져 있다.

길이 34센티, 두께 2센티, 폭 12.5센티 자연석에 새겨진 글자는 모두 74자로 이 작은 비문은 당시의 화랑정신이 어떠했는가를 잘 내타내고 있다.

임신년 6월 16일에 두 사람이 함께 맹서하고 기록한다. 하느님 앞에 맹서한다. 지금부터 3년 이후 충도를 지켜 과실이 없기를 맹서한다. 만약에 저버리면 하늘의 큰 벌을 받을 것을 맹서한다. 만약 나라가 불안하고 세상이 크게 어지러우면, 가이 행할 것을 맹서한다.

또 따로(3년 전인) 신미년 7월 22일에 맹서했다. 시경·상서·예기·춘추·좌전 등을 차계로 3년에 습득할 것을 맹세한다.¹⁶⁾

당시의 화랑과 낭도들의 수련태도를 보면, 이러한 맹서는 화랑도의 다도정신이었던 三德과 世俗五戒를 즉시광명각조(卽是光明覺照)의 정신으로 풍운유수(風雲流水)하면서 호연지기(浩然之氣)를 길렀다고 보여진다.

여기에서 강조된 것은 충도의 실천이며 학문은 오로지 나라에 이바지하는 방법으로, 신라의 젊은이들은 이러한 각오로 학문을 했고 나라가 필요할 때는 기꺼이 한 몸을 바쳤다. 신라의 삼국통일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화

16) 壬申年六月十六日二人聯誓記天前誓, 今自三年以後忠道執持過失尤誓

此事失天大罪得誓國, 不安不亂世可容口行誓之

又別先辛未年七月二日大誓, 詩尙書體傳 得誓三年

량도 지도자 사선들이 항상 다 도구를 지니고 다니며 차를 달여 마셨고 차 생활을 통하여 혈기왕성한 花郎徒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정서생활을 하게 하였다는 것을 미루어볼 때¹⁷⁾ 이같이 금장대의 임신서기석도 신라의 화랑들이 심신을 단련할 때 차를 즐긴 증거이다.

(3) 고려시대 다군사(茶軍士)

다군사는 다방(茶房)에 소속되어 궁중 밖에서 왕족에게 차를 올리거나 준비하는 일을 위해 다구와 짐을 나르는 군인을 말한다.

왕이 행차할 때 따르는 의장대의 행렬 중에는 행로(行爐:휴대용 화로) 군사와 다담(茶擔:다구를 포함한 차짐) 군사가 뒤따랐다. 다군사는 군역(軍役)을 면제받는 특전이 있으므로 보충인원이 수백 명이 되는 폐단이 있어 그 수를 용모단정한 자 백 명으로 줄이기도 했으며, 때로는 종군(從軍)하게 하였다.

팔관회 때 왕이 간악전(看樂殿)에 음악 감상을 하러 갈 때의 위장(衛仗)에도 행로·다담군사 4인과 교상 수관자 담당군사 4인이 따랐다.

왕이 西京이나 南京을 순행할 때와, 왕이 순행에서 돌아옴을 환영할 때의 의장행렬에는 行爐·茶擔을 담당하는 군사 각 4인씩과, 교상과 수관자를 나르는 군사 네 사람씩이 있었다. 그리고 행로와 다담을 따르는 군사 6인이 있는 경우도 있었다.

연등 소회일에 왕이 봉은사에 거동하여 선조(先祖)의 진전(眞殿:先王의 초상화를 모신 곳)을 배알할 때에도 위장행렬에 行爐·茶擔을 담당하는 군사 4인이 있었다.

왕이 의봉루에서 죄의 사면을 선포하는 선사의(宣赦儀)의 의장(儀仗)에는 행

17) 석선혜, 「화랑도 차생활과 풍류도」, 2001, pp.5-7.

로·다담 군사 4인과 교상·수관자 담당군사 4인이 배속되었다. 서책과 필연 담당군사 4인도 따른 것으로 보아, 사면의 선포 의식에 필요한 모든 것을 군사들이 지니고 다녔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왕태자의 야외 주행(周行)시 로부(鹵簿: 거친 의장 행렬)에는 行爐와 茶擔 군사 4인, 교상·수관자 4인 외에 뒤따르는 다방군사 415인이 있었다.¹⁸⁾

다군사 제도는 이웃나라에서 볼 수 없는 우리나라의 풍습인데, 이는 신라 시대의 국선(國仙) 및 화랑들과 낭도들이 산천을 유람하며 수련할 때 차를 마실 도구를 지니고 다니던 풍습에서 유래되어 제도화된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왕이 행차할 때보다 왕태자가 행차할 때 더 많은 인원이 따르는 것도 다군사는 신라의 낭도와 연관된다고 생각된다.

(4) 조선시대 사명대사와 이순신 장군

임진왜란 뒤 수교국사(修交國使)로 일본에 간 사명(泗冥)스님에게는 어린 동자(童子)가 시중을 들었다.

그 어린 동자가 사명스님의 차 드시는 모습을 흠양하여 전하였는데 오늘날 일본에 남은 사명다도(泗冥茶道)가 바로 그것이었다. 그리고 전통 사찰풍속으로 볼 때 사명스님도 어린 사미승 시절 때 차를 달이는 다각의 소임을 맡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사명스님이 지은 그의 문집을 보면 탁월한 차에 관한 여섯편 시가 실려있다.

武人으로 유명한 이순신(李舜臣) 장군도 차(茶)를 즐겼으며 차에 관한 시가 남아있다.¹⁹⁾

18) 정영선, 「고려다례에 관한 연구」, 차문화연구지 제11권, 2002, p. 18.

19) 석성우, 「다도」, 한겨레, 1981, pp. 101-103.

고국을 이별한지 해가 지났는데
멀리 하늘 구석에 노누나
좋은 경치 볼 마음도 없건만
손이 있어 술병 들고 놀러 가자네
사미가 찻잔을 내놓고
호백은 방석을 펴네

-사명스님의 시 1

비 개고 꽃피는 삼월
강호에 따뜻한 기운 서리고
버들개지는 푸른 실 희롱하네
먼 산은 물결 속에 그림이요
동자는 낙엽을 주워 차를 달이니
평생에 불평 쌓인 창자를 깨끗이 씻어주네²⁰⁾

-사명스님의 시 2

曹溪를 이은 백대의 손자
行裝이 가는 곳마다 사슴과 벗한다
옆에 사람들아 헛되이 날을 보낸다 이르지 말라
茶를 달이는 여가에 흰 구름을 본다.

-사명스님의 시 3

모이고 흠어짐이 숙세의 인연
바다 동쪽 하자에 만날 줄 뉘 알리
봄 정자에서 仙茶를 다려 마시니
푸른 풀과 내 끼인 꽃이 눈 앞에 가득하구나
黃庭을 손에 들고 神訣을 묻고저

20) 천병식, 「역사속의 우리다인」, 이른아침, 2004, pp. 148~150.

멀리 바다 건너 신선의 문 두드렸더니
沙彌 불리 차 석잔 내오니
東阮의 宗風 예와 같구나²¹⁾

-사명스님의 시 4-

이와같이 우리의 오랜 역사속에서 화랑을 비롯한 무인(武人)들은 명산대천에서 차를 마시며 호연지기(浩然之氣)를 길러 웅혼하고 활달한 전투적기상으로 나라가 어려울 때는 위국헌신(爲國獻身)하여 국가에 대한 절대적 충성과 무인으로서의 지조를 지켜 국난을 극복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차생활의 약리적 효능과 정신적 효과

우리의 茶文化은 차를 매개체로 하여 생활 속에 구현되는 생활문화로서 정신적인 효능과 약리적인 효능을 내포하고 있다. 오랜 역사를 통해 우리 민족이 차를 즐긴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정신문화 향상과 건강에 유익한 효능이 있기 때문이라 하겠다. 우리 민족에게 차를 약으로 사용하였듯이 차는 단순한 기호음료에 그치지 않고 약리적인 효과가 있음이 널리 알려져왔다.

또한 차는 정신을 맑게하며 풍류와 정신 수련을 닦는 수단으로서의 역할도 하였다. 이처럼 옛 문헌 속에서 다도를 통해서 얻게되는 정신적, 물질적, 보건학적 효능은 잘 알려져 왔다.

21) 김상현, 「한국의 茶詩」, 태평양, 1986, pp. 190~192.

(1) 약리적 효능

茶는 우리 몸에 유익한 여러 가지 성분을 가지고 있어 그 치료나 효능에 대해 기술한 문헌을 많이 볼 수 있다.

역사에서 茶가 등장한 것은 4500여년 전 炎帝 神農의 이야기에서다.

「神農이 하루 76가지의 약초를 달여마시고 혀끝에 베인 독을 茶를 마시고 해독했다²²⁾」 한다. 이는 茶의 해독작용이 있음을 말하고 있다.

陸羽²³⁾의 『茶經²⁴⁾』 ‘七之事’에 이르기를

「茶를 오래 마시면 힘이 솟고 기분이 즐겁게 된다」²⁵⁾고 『神農食經』을 인용해 기록하고 있다.

「六之飲」에는

「목이 마르면 물(맑은 액체)을 마시고
우울함과 울분을 삼키려면 술을 마시며

22) 神農의 「本草經」中, 張永東, 「韓國茶道の 속 멋」, 빛남, 1999, p. 120에서 재인용.

23) 육우(陸羽, 727803) 字는 鴻漸, 號는 상저옹(桑苧翁)으로 茶聖 또는 茶神으로 오늘날 많은 茶人들의 崇仰을 받고 있다. 부모, 출생지, 출생연도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으나 경릉군 북부주 소재 龍蓋寺의 주지 스님인 지적선사가 西湖 물가에서 데려 와 길렀다는 것으로 본다.

大曆 10년(775)에 안진경의 「운해경원」 360권을 편찬하는 일에 석교연(釋皎然)스님과 함께 참여한다. 이때 차에 대한 이야기를 수집하였고 그의 저서인 「茶經」의 ‘칠지사’ 편에 보충 편집하였다. 육우는 양자강 유역의 많은 茶 지역을 직접 탐방하여 차에 대한 이야기의 사료를 검증하고 체험하였다. 그 이전의 차에 관한 사료도 많이 수집하였다. 780년경 교연의 절대적 지지 아래 茶經을 간행하기에 이르렀다. 중국의 茶文化를 발전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24) 茶經은 중국 당나라 때 육우가 저술한 차에 관한 최초의 전문서적이다.

차의 기원, 산지, 製茶, 다기, 烹者, 차 마시기 등 그 내용이 광범위하고 풍부하게 기술되어 있어 당나라 때 차사를 이해하고 연구하는데 귀중한 茶書이다.

25) “茶茗久服 令人有力 悅志”, 陸羽 原著, 姜育發 新譯, 「茶經」, 남담산방, 2000, p.191.

정신을 차리게 하고 잠을 좇으려면 茶를 마신다」 26)

고 하여 茶는 解渴하고 각성작용으로 인해 정신을 맑게 하고 잠을 좇을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許浚(1546-1615)의 『東醫寶鑑』藥茶 處方法에 苦茶 作설차는 「성품은 차고 싸늘하다. 맛은 쓰고 달며 독기는 없다. 기력을 내리고 체한 음식들을 삭힌다. 머리와 눈을 맑게 하며 소변을 통하게 하고 糖尿(당뇨)을 멈춘다. 사람으로 하여금 잠을 적게 한다. 또 불에 데인 독을 풀어준다」 27)는 기록이 있다.

朝鮮時代 寒齋 이목²⁸⁾은 茶의 玄妙함을 노래한 『茶賦』²⁹⁾에서 茶의 五功, 六德을 칭찬했다. 그 중 五功(다섯 가지 공)은

1. 책을 볼 때 갈증을 없애준다.(誰解其渴)
2. 울분을 풀어준다.(誰飲其鬱)
3. 손님과 주인의 정을 화합하게 한다.(賓主之情誰協)

26) 姜育發, 前偈書, p. 171.

27) 「苦茶：下氣消 宿食 清頭目利小使 止渴令人小睡 又解炙炒毒」, 湯藥篇, 卷20木部.

28) 이목(李穆：1471-1498)：자는 仲雍 호는 寒齋 로 성종2년 경기도 김포군 하성면 가금리에서 全州人, 참의공 이윤생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8세에 취학하여 14세에는 성리학의 대가인 점필제 김종직의 門下에서 한훤 김광필, 일두 정여창, 탁영 김일손, 추강 남효온과 같이 文道와 선비의 길에 들었다. 28세 되던 1498년 연산 4년 戊午土禍 때 윤필상 등의 모함으로 조의제문 사건에 연루되어 禍를 입었다. 연산군 10년 1504년 甲子土禍 때 다시 부관참시를 당하였다.

29) 조선시대 이목이 쓴 茶에 대한 예찬서로서 “차를 칭송하지 않으면 賢人을 버려둠과 같기 때문에 의무로써 쓰노라”고 그 저작 동기를 말하고 있듯이 선비의 정아한 삶과 차 생활이 불가피성을 깨닫게 하는 茶書이다. 대략 저작동기와 내용구성의 서론, 차의 종류, 주요생산지, 茶園風光, 五功六德, 현실과 道의 경계로 나누어 이해할 수 있다.

4. 뱃속 기생충으로 인한 고통을 없앤다.(三彭蟲誰征)
5. 취한 술을 깨게 한다.(五夜之誰誰輟)

하여 茶의 효능에 대해 말하였다.

秋史 김정희³⁰⁾의 弟子 李尙迪³¹⁾은 『思通 堂集』 속 2편에 수록된 그의 詩에서 「진시황이 구하던 불로초인 영약보다 茶 한 잔의 효능이 높다」³²⁾고 하였다.

이렇듯 차는 배탈이 났을 때, 머리가 아플 때의 치료제로서 나아가 머리를 맑게 하는 음료로, 몸을 가볍게 하는 기능을 가짐으로서 생활 문화 속에 귀중한 藥效로써 구실을 했다.

현재 밝혀진 차의 효능을 살펴보면 覺性作用과 흥분작용으로 정신을 맑게 하고 감각을 예민하게 하며, 기억력, 판단력, 사고력을 증진시킨다. 졸음을 없애주며 혈관을 확장시켜 운동능력도 높여준다.

차의 탄닌 성분은 유독 물질과 결합하여 장에서 흡수되지 않고 화합물이 됨으로써 해독효과, 항암억제 효과가 있으며, 그밖에 식중독예방효과, 숙취해소, 항산

30) 추사 김정희(金正喜 : 1786-1856) 호인 완당, 추사 이외에 차를 좋아하여 다로, 승설학인 등 많은 호를 가지고 있다. 서화가이며 문신으로 학문에서는 실학파에 속했으며 서예에서는 독특한 추사체를 대성시켰다. 30살 때 다산의 아들 유산으로부터 동갑인 초의를 만나 친교가 두터웠으며 초의로부터 해마다 차를 얻어마셨다. 초의에게 써준 '명선(茗禪)'은 그의 생활이 차와 선으로 일관됨을 알 수 있다. 그는 차로 인해 학문과 예술의 경지가 더욱 승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31) 이상적(李尙迪, : 1804-1865) 자는 혜길, 호는 우선(藕船)이다. 역관인 이정직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이상적이 역관으로 청에 갔을 때 추사 김정희가 갖기 원했던 책을 구해 귀양지인 제주도로 보낸 바 추사는 '세한도'를 그려 보답했다 한다. 이 '세한도'는 국보 제185호로 지정되어 있다. 그는 사회적 지위가 보잘 것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문장으로 많은 문사들과 교류하였다. 그러나 차별대우에서 오는 심리적 갈등은 한잔의 차와 더불어 맑은 시심을 가지려 노력하였던 것이 차에 대한 그의 시를 통해 짐작해 볼 수 있다.

32) 이연자, 「차가 있는 삶」, 초롱출판사, 1998, p. 279.

화 및 노화억제효과 등등, 옛 문헌에 약효로 사용된 바와 효과가 일치함을 볼 수 있다.³³⁾

1969년 박종한³⁴⁾은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훈화나 상담을 통하여 대화를 지도하는 대신 차를 마시는 행동과 생활을 통하여 학생들을 지도하였더니 정서를 안정시키고 자아를 각성하는데 효과를 보았다고 하였다.

1978년 홍사악은 올바른 차의 정신을 자라나는 청소년의 의식에 배이게 하던 한 잔의 차를 희망과 의지와 관심의 시간을 갖게 되며, 차를 마시는 경지에 대하여 고요하며 깊고 그윽하기 때문에 스스로 깨달음의 경지가 됨이 차를 상용 마셔봄으로써 겪게 되는 상징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또한 1979년 여동찬³⁵⁾은 부모와 자녀의 대화가 막힌 것을 차를 마시는 시간을 통하여 해소할 수 있으며, 부모와 학교에서 대화시간 부족으로 단절이 올 때 가정에서 기회를 마련하여 사랑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 학교에 대례를 통해서 예법을 익히면서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눔이 요구되어진다고 제안하였다. 그리고 1984년 조순아³⁶⁾는 전통차가 자아혼미 상태인 청소년기에 안정된 성격을 지닐 수 있는지를 실험한 결과 안정성과 사려성이 높으며, 충동성과 불안정성이 낮아 바람직한 정서안정이 이루어진다는 결과를 얻었다.

1988년 최정은³⁷⁾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학교에서 받은 다도교육

33) 강성희, 「현대가정에서 차생활을 통한 자녀교육」,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정보산업대학원, 2002, p. 21.

34) 박종한, 「청소년교육과 차문화 발전」, 한국문화재보호협회 세미나 자료, 1985, p. 12.

35) 여동찬, 「우울증 빈도와 남녀변화에 대한 고찰」, 신경정신의학, 1978, p. 18.

36) 조순아, 「전통차와 명상이 정서안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대학원, 1984, p. 31.

37) 최정은, 「다도교육에 관한 일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신여대교육대학원, 1988, p.54.

이 실제 생활에서 정신적 안정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학교에서의 다도교육이 가정으로 이어져서 가족과 함께 예의를 갖추면서 차의 맛과 향을 음미하며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또한 1991년 이성애³⁸⁾는 서울시내 고등학교 교사를 중심으로 한 연구에서 생활다도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정서적 안정 등 정신 건강과 신체적 건강, 바른 예절 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 보았으며, 미래의 주인공이 될 학생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들이 다도 수련의 기회를 통해 차 생활의 모범을 보임으로써 학생들에게 차문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 주어 학교에서 가정과 사회로 계승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

1993년 김정은³⁹⁾은 차를 마시고 마셔본 경험이 있는 대학생이 차 생활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았으며, 나아가 예절의 기본을 익혀 전통문화에 자긍심을 가질 수 있다고 보았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신적인 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신라의 화랑이 차를 통하여 심신을 수련했듯이 우리 군 장병들이 다도를 통해 바람직한 인성을 도모하는 방법을 득할 수 있을 것이다

38) 이성애, 「우리나라 차문화의 문헌적 고찰과 의식구조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1991, p. 14.

39) 김정은, 「대학생의 차 생활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신여대교육대학원, 1993, p. 54.

Ⅲ. 연구방법

1. 가 설

본 연구의 목적은 차 생활을 통한 다도교육이 군 정신전력 강화에 미치는 효과를 밝히는데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앞에서 살펴본 이론적 배경을 기초로 하여, 본 연구에서 검증할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1> 다도교육을 받은 장병집단과 받지 않은 장병 집단간에는 정신전력 강화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를 보일 것이다.

<가설2> 다도교육을 받은 장병집단의 정신전력 강화 효과는 장병 집단의 특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일 것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 대상은 육군○○부대에 근무하는 병사 30명을 실험집단으로 하였고 통제집단은 같은 부대에 근무하는 병사 3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표 3-1> 연구대상

집단	성별	사례수
실험집단	남	30
통제집단	남	30
계		60

3. 실험설계

이 연구는 <표 3-2>와 같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대상으로 사전사후검사로 계획되었다. 먼저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사전 검사를 실시한 후 그 차이를 검증한 뒤 실험집단에만 다도교육을 실시하고나서 각 집단에서 나타나는 사후검사 결과의 차를 살펴보는 것으로 설계하였다.

<표 3-2> 실험 설계

실험집단	O ₁	X	O ₃
통제집단	O ₂		O ₄

O₁, O₂ : 사전검사(정신진력)

X : 실험처치(다도교육)

O₃, O₄ : 사후검사(정신진력)

4.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검사도구는 1997년 국방부에서 발행된 정신전력 지도지침서의 태도 조사에 사용된 질문지로서 교육 전과 교육 후를 비교함에 있어 동일하게 활용하였다.

질문지 내용을 살펴보면 군인정신 15문항, 군기 10문항, 사기 15문항, 단결15문항 총 5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인 문항과 영역별 평가 항목은 <부록>에 제시 되어있다.

본 측정도구의 문항측정은 정말 그렇다, 그런 편이다, 반반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의 5단계 Likert 척도로 되어 있으며, 채점방식은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정말 그렇다 5점, 그런 편이다 4점, 반반이다 3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채점하였다. 이 검사의 신뢰도는 다음의<표 3-3>과 같다.

<표 3-3> 신뢰도

구 분	Cronbach α 신뢰도
군인정신	0.87
군기	0.73
사기	0.78
단결	0.86
전체	0.81

5. 연구절차

가. 사전검사

이 연구의 사전 검사는 다도교육을 하기 전 병사들의 정신전력을 측정하고자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60명을 대상으로 2004년 3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에 걸쳐 실시하였다.

나. 실험집단의 다도교육

본연구에 사용한 시험처치는 다도교육 프로그램이며, 실험집단의 다도교육은 2004년 4월 6일부터 30일까지 총 4주 동안 매주 2회 실시되었다.

다도교육 프로그램은 선행연구와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연구자가 구안하였다. 세부 내용은 차의 정의와 특성, 차의 효능, 다구 다루기와 차를 우려내는 행다 실습 등으로 구성되었다. 교육은 연구자의 강의와 함께 1991년에 태평양화학에서 제작한 「茶香」 VTR자료와 KBS 지방네트워크에서 방송된 영상자료 시청, 병사들에 의한 직접개인별 행다 실습으로 진행 되었다. 다도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표 3-4>와 부록<표-3>과 같다.

<표 3-4> 다도교육 프로그램

영역	교육 내용
차의특성	차나무의 특성 / 기원 녹차의 종류 우리나라 차문화의 역사 제다방법
차의효능	차의성분 차의효능
행다실습	다구의 종류 및 사용법 차 우려내는 방법 차 마시는 방법

다. 사후 검사

사후검사는 실험처치후인 5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에 걸쳐 실시하였다.교육 전과 동일한 측정지를 가지고 연구대상 병사 6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6. 자료 분석 방법

자료분석은 SPSS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처리 하였으며, 다도교육 실시 이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두 집단간의 정신전력 측정지수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하였다.

다도교육 실시 후 교육을 받은 실험집단과 교육을 받지 않은 비실험 집단간의 정신전력 측정지수에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두 집단간의 차이를 t-test로 분석하였다.

다도교육을 받은 실험집단의 정신전력 측정지수가 수행임무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를 조사하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다도교육을 통한 차생활이 부대원의 정신전력 강화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는데 있다. 앞장에서 제시한 연구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실험처치 전에 실시한 정신전력 측정 사전 검사와 실험처치 후에 실시한 정신전력 사후 검사결과를 토대로 하여 실험처치의 효과를 검증하였다. 이 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 그것과 관련한 논의를 하고자 한다.

1. 결과 및 해석

가. 연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연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표 4-1>과 같다. 연령별로 보면, 22세 이상의 장병이 연구 대상자의 85.0%를 차지한 가운데 21세 이하가 15.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으로는 대학 재학 중인 장병이 전체 응답자의 73.3%로 가장 높았고, 종교별로는 기독교(36.7%), 불교(28.3%), 기타/무교(21.7%) 등의 순으로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계급별로는 상병이 31.6%로 가장 많았고, 병장(26.7%), 일병(25.0%), 이병(16.7%)순으로 나타났다.

<표 4-1> 조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분	빈도	구성비(%)
연령	20세 이하	3.3
	21세 이하	11.7
	22세	40.0
	23세 이상	45.0
학력	고졸	16.7
	대학재학	73.3
	대학졸업	10.0
종교	기독교	36.7
	불교	28.3
	천주교	13.3
	기타/무교	21.7
계급	이병	16.7
	일병	25.0
	상병	31.6
	병장	26.7
총계	60	100.0

나. 집단별 정신전력 사전 검사 결과

다도교육을 받은 장병 집단과 교육을 받지 않은 장병집단의 동질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정신전력 사전 검사 결과를 검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2>와 같다.

<표 4-2> 집단별 정신전력 사전 검사 결과

집단	N	M	SD	t
실험집단	30	3.9759	.4027	3.005
통제집단	30	3.9643	.4195	

P > .05

<표 4-2 >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으므로 (P > .05)두 집단은 동질집단임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사후검사를 통해 나타난 결과는 실험처치인 다도교육의 효과라고 할 수 있다.

다. 집단별 사후 검사 결과

다도교육을 받은 집단과 받지 않은 집단간에는 정신전력강화에 유의한 차이를 보일 것이라는 <가설1>을 검증하기 위해 각 집단별 정신전력 사후 검사결과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는 <표4-3>과 같다.

<표 4-3> 집단별 정신전력 사후 검사 결과

집단	N	M	SD	t
실험집단	30	4.1254	.4900	1.788*
통제집단	30	3.9596	.4941	

*P < .05

두 집단을 비교한 결과, <가설 1>은 긍정되었다. 즉 다도교육을 받은 장병 집단과 받지 않은 집단의 정신전력의 강화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 < .05)

라. 실험집단의 집단 특성별 정신전력 사후 검사 결과

다도교육을 받은 장병 집단의 정신전력 강화효과는 장병 집단의 특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일 것이 라는 <가설 2>를 검증하기 위해 다도교육을 받은 집단 특성인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집단과 전투임무를 수행하는 집단의 정신전력 사후 검사 결과를 t검증하였다. 그 결과는 <표 4-4>와 같다.

<표 4-4> 다도교육을 받은 집단 특성별 사후 검사 결과

집단	N	M	SD	t
행정병	10	4.3801	.3484	2.337*
전투병	20	4.4696	.4191	
계	30			

비교결과 <가설 2>는 긍정되었다. 즉 다도교육을 받은 장병집단의 특성인 행정병 집단과 전투병 집단의 정신전력의 강화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 < .05$) 그리고 다도교육은 행정병보다 전투병이 정신전력 강화에 더 효과적이었다.

2. 논 의

본 연구에서는 다도교육을 받은 장병 집단과 교육을 받지 않은 집단간 장병들의 정신전력 강화에 어떠한 효과를 미치는지 검증하였다.

다도교육을 받은 집단이 정신전력 강화에 더 효과적이었으며, 집단 특성에 따른 다도교육은 행정병 보다 전투병 집단이 더 효과적이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과거 명산대천을 순례하며 차 생활을 통해 호연지기와 조국애를 기른 화랑과 같이 다도교육을 통한 차 생활이 정서적 안정을 통해 장병의 내면에 잠재된 무형의 힘을 밖으로 표출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탈바꿈되어 닫힌 가슴을 열어주고 국가관과 군인정신을 재정립시켜줌으로써 장병의 정신전력이 향상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것으로 조순아⁴⁰⁾의 연구에서 전통차와 명상을 통하여 일상생활에서의 정서적 안정을 유지하고 건전한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또한 이해자⁴¹⁾의 연구에서 다도교육은 가정과 학교에서 미흡한 기본예절의 보완과 심신수련, 차의 효능에 따른 기억력 증가, 심신의 안정, 수마제거 등의 학습증진을 가져온다는 연구결과와도 일치 한다고 볼 수 있다.

40) 조순아, 「전통차와 명상이 정서적 안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1984, p. 3.

41) 이해자, 「어린이 다도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차학회 초록집, 2001, p. 16.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일반사회 조직과 달리 조직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장병 개개인의 본능적 욕구를 억제하고 극한 상황에서는 자신의 생명까지도 희생할 수 있는 가치관을 요구하는 군대에서 모든 장병이 지휘관을 중심으로 굳게 단결하여 드높은 사기와 확고한 신념으로 부대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조직화된 무형전력인 정신전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다도교육을 통한 차 생활이 군 장병의 정신전력 강화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는데 있다.

연구 방법은 정신전력의 본질, 구성요소와 정신전력 강화방안을 토대로 우리 민족의 전통 문화인 차 문화의 역사 속에서 나타난 군인의 차 생활 모습, 차가 정서적 심리적, 안정에 어떠한 효과와 효능이 있는지 관련 문헌 연구를 통하여 이론적 고찰을 실시하고 실증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정신전력은 모든 장병이 지휘관을 중심으로 투철한 군인정신, 엄정한 군기, 충천된 사기 공고화된 단결로 부여된 임무를 능동적으로 완수할 수 있는 조직화된 전투의지력이다.

「情神」은 개인적 차원에서 장병 개개인의 군인정신을 말하며, 「戰力」은 군집단이 갖추어야 할 집단의 전투수행능력을 말한다.

따라서 정신을 전력화하기 위해 각급 지휘관은 지휘통솔 능력을 발휘하여 장병들로 하여금 전투의지와 필승의 신념을 고취할 수 있도록 제반 군인정신 요소들을 함양하게 함은 물론, 주어진 부대 임무를 자발적으로 완수 할 수 있도록 장병 개개인들의 정신을 집단정신으로 규합, 승화시켜 조직화한 힘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정신전력 함양을 위해서는 군인정신 요소인 명예심, 충성심, 용기, 필승의 신념, 임전무퇴의 기상, 애국애족의 정신 등 투철한 가치관을 정립해야 하며, 군기 유지, 사기진작, 그리고 단결을 공고히 하여 집단정신으로 규합 승화 시켜야 된다.

특정부대의 장병이 투철한 군인정신을 갖추고 지휘관을 핵심으로 굳게 뭉쳐 부대목표 달성을 위해 자발적이고 의욕적으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은 부대의 정신전력이 강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신전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 중 하나가 군 장병들에게 다도교육을 통한 차 생활을 영위시키는 것이다. 차를 마시면 부하를 가진 지휘관은 순발력과 판단력을 가질 수 있고, 부하장병들은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고 직무에 충실하는 예절을 갖추게 된다. 정서적 안정과 심리적 안정으로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고 불평불만, 불안, 공포, 심리적 혼란 등 군복무 부적응을 해소시켜 군 정신전력을 강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민족은 오랜 역사를 통하여 차 생활을 영위하여 왔다. 선비들은 자신의 서실에 지기를 모시고 차를 즐긴다거나 혼자서 그 분위기와 차 맛을 음미할 때 修身을 하면서 飲茶 생활을 즐겼다. 역사적 문헌을 보면 고려시대에는 군인이 나라에 큰 공을 세우면 왕이 차를 下賜하였고, 전사한 가족에게는 차를 보내 慰勞하였다. 우리민족에게 있어서 차 생활은 하나의 철학과 생활, 예도였으며 차의 정신으로 말은바 직분을 다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茶聖으로 일컬어지는 草衣선사는 “차는 君子의 성품과 같이 邪惡함이 없으므로 예부터 聖賢들이 차를 즐겨 마셨다”며 우리나라 차의 특성을 강조했고 조선시대 대표적 다인인 다산 정약용도 “한나라가 술을 마시면 亡하고, 차를 마시면 興한다”고 하여 우리 백성들에게 차 생활을 통하여 냉철하게 미래를 생각하는 사고와 각성된 생활을 하도록 차 마시기를 권유했다. 따라서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생활 속에서 복잡한 감정

을 정화시키고 순화시키는 매개체인 차 생활은 우리전통 문화를 잃어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예법 존중과 정서 함양의 측면뿐만 아니라 정신문화의 계승이라는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 여겨진다.

연구의 목적인 다도교육을 통한 차 생활이 군 장병의 정신전력 강화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관련 문헌과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다도교육을 받은 장병 집단과 받지 않은 집단간에는 정신전력강화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를 보일 것이다.

<가설 2> 다도교육을 받은 장병집단의 정신전력 강화효과는 장병 집단의 특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일 것이다.

본 연구의 대상은 육군○○부대 장병 60명으로 표집 하여 30명을 실험집단에 30명을 통제집단에 배정하였다.

먼저 장병들에게 다도교육을 하기 전 국방부에서 제작한 정신전력 측정 지를 가지고 사전 조사를 실시하였고, 실험집단인 장병들에게는 차의 정의와 특성, 차의 종류 역사, 차의 효능, 행다 실습과 관련된 교육을 4주간 실시하였다.

실험집단에서 실시한 다도교육이 끝난 후 사전검사와 동일한 정신전력 측정지를 가지고 연구대상 60명의 장병에 대한 사후검사가 이루어졌다.

사전검사에 의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집단 특성 간 동질집단으로 확인되었으므로 가설 검증을 위해 정신전력 사후 검사 결과를 t검증하였다. 가설의 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가설1>은 긍정되었다. 즉 다도교육을 받은 장병집단과 받지 않은 장병 집단간 정신전력 강화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5$)

나. <가설 2>는 긍정되었다. 즉 다도교육을 받은 장병집단의 특성인 전투병과

행정병의 정신전력의 강화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 < .05$) 그리고 다도교육은 행정병보다 전투병집단이 정신전력 강화에 더 효과적이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다도교육을 통한 차 생활이 군 장병의 정신전력에 기여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차의 五味와 인체에 미치는 효능을 통해서 군인에게 차의 필요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차의 쓴맛은 심장의 기능을 안정시켜준다. 심장의 기능이 원활하고 안정된다는 것은 사고력이 있는 정서적 생활을 의미한다. 차의 단맛은 비장의 기능을 향상시켜준다. 단맛은 카페인 성분과 같이 기억력을 향상시켜주며 밝고 지혜로운 생활을 하게 한다. 차의 떫은 맛은 폐장의 기능을 원활하게 하여 신진대사를 촉진시켜주고 기운이 솟아나게 한다. 차의 신맛은 간장의 기능을 원활하게 하여 혈액순환과 새로운 혈액을 생성하게 한다. 차의 짠맛은 신장의 기능을 원활하게 하여 지구력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힘이 솟아나게 한다. 이상의 차의 오미가 미치는 효능은 20대의 혈기왕성한 군인들에게 정서적 안정과 원기생성, 지구력을 향상시키는 등, 항상 새로운 에너지와 힘을 생기게 해주기 때문에 어떤 기호품보다도 군 장병들에게 차 생활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군 장병들의 정신전력 향상을 위한 차 생활을 하기위해

가. 군부대 장병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다도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군 장병들을 대상으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다도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가 필요하다.

나. 군에서 체험한 경험은 평생을 잊지 않고 기억되듯이 군 생활 중 접한 한잔의 차 맛은 전역 후에도 차를 애용하고 즐길 수 있는 계기가 되어 결국

우리 차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군부대 장병이 차 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 일반 사회 차 文化 단체와 차인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이 요구된다.

2.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본 연구는 연구대상과 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제한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연구결과 해석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첫째, 본 연구의 실험대상은 육군○○부대 장병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행하였으므로 이 결과를 일반화 하는 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동일한 정신전력 측정 검사지를 가지고 사전검사와 사후검사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사전검사가 사후검사에 미치는 영향을 완전히 배제하지 못했다.

셋째, 분석방법에 있어 다도교육이 장병들의 정신전력 향상에 얼마나 향상시킬 것인가에 초점을 두어 연구를 수행했기 때문에 다도교육과 군인정신, 군기·단결력·사기 등 정신전력의 세부영역과의 상관관계연구와 다도교육의 여러 가지 요인 중 어떤 요인이 정신전력을 향상시키는가에 대한 인과론적 모형을 적용한 후속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다도교육은 교육장소 환경, 여건과 행다실습에 따라 효과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교육여건에 따른 프로그램의 구안 및 운영을 달리해야한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학계에서 연구된 선행 연구에 근거하여 다도교육을 통한 차 생활이 장병들의 정신전력 지수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參 考 文 獻

- 감승희 編, 「한국 茶생활 총서」, 서울출판, 1994.
- 姜育發 譯, 「中國古代茶書精華」, 남탐산방, 2000.
- _____, 陸羽 原著, 「茶經」, 남탐산방, 2000.
- 권태원, 「우리의 茶문화와 다례」, 경인문화사, 2001.
- 김대성, 「차문화 유적답사기 상·중·하」, 불교영상, 1999
- 金明培, 陸羽 原著, 「茶經」, 태평양박물관, 1982.
- _____, 「茶道學」, 학문사, 1998.
- _____, 「茶道學 論考」, 大光文化社, 1996.
- _____, 編譯, 「中國의 茶道」, 명문당, 1993.
- 김종태, 「茶의 科學과 文化」, 보림사, 1996.
- 국방부, 「정신전력」, 1997.
- 국방부, 「정신전력 지도 지침서」, 1999.
- 박희준, 「茶 한 잔」, 신어림, 1999.
- 백종철, 「茶와 哲學」, 서울기획, 2000.
- 석선혜, 「화랑도 차생활과 풍류도」, 저자간행, 2001.
- 석선혜, 「편지로 읽는 다도 강좌」, 저자간행, 1990.
- 이연자, 「차가 있는 삶」, 초롱, 1998.
- 이중해, 「茶와 冥想」, 초의, 1993
- 임계삼외3, 「中國茶道」, 暢文, 2001.
- 장영동, 「韓國茶道の 속 멋」, 빛남, 1999.
- 정동호 외, 「차의 과학」, 대광서림, 1997.

- 정영선, 「고려다례에 관한연구」, 차문화연구지, 2002.
- 정영선, 「다도철학」, 너럭바위, 1996.
- 천병식, 「茶는 인간을 멋있고 향기롭게 해준다」, 초의, 1995.
- 최계원, 「우리茶의 再照明」, 三陽, 1983.
- 최범술, 「韓國의 茶道」, 寶蓮閣, 1980.
- 최성희, 「우리차 세계의 차」, 서원, 1999.

學位論文

- 강성희, “현대가정에서 차생활을 통한 자녀교육”, 석사학위논문, 성신여대 정보산업대학원, 2002.
- 김동명, “한국군 병사의 바람직한 가치관 확대에 관한 실증적 연구”, 석사학위논문, 강원대학교 경영대학원, 2000.
- 김명옥, “중등학교 예절교육의 실태 분석과 활성화 방안”, 석사학위논문, 경성대학 교육대학원, 2000.
- 김영숙, “선택된 유아 다례교육 프로그램이 유아의 사회 정서 발달에 미치는 영향과 교사-부모의 유아 평가 자료로서의 활용”, 석사학위논문, 성균관 대학 생활과학 대학원, 2002.
- 김정은, “대학생의 차생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1993.
- 남승현, “뇌호흡을 통한 인성교육이 장병들의 정신전력 강화에 미치는 효과연구”, 석사학위논문, 공주대학교 대학원, 2001.
- 박균열, “공동체의식을 위한 가치교육 방법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1994.
- 박옥녀, “한국 차문화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1997.

- 백현순, “중학생의 다도교육에 따른 예정규범 인식과 예절수행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교양학회지」, 제5집, 1998
- 신성자, “유치원의 전통예절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1998.
- 오시행, “차생활 교육을 위한 茶 문화의 역사적 고찰”,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1993.
- 오정옥, “다도교육의 실태분석”, 「한국차학회지」, 제1권 제1호, 1995.
- 윤인숙, “여고생의 다례에 관한 조사연구”,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1993
- 우유선, “유아원생의 생활예절 관습전후에 나타난 교육효과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1997.
- 유복열, “한국의 차문화와 다례에 관한 복식연구”, 박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대학원, 2002.

ABSTRACT

Research on tea drinking and its effect on
soldier's psychological capability

Juen, Jong-Su

Major in Etiquette and Tea

The Dept. of Cultural Industrial

Graduate School

Sungshin Women's University

Armed Forces' purpose is to fight the battle against enemy and complete assigned missions with all the means and measures to be victorious. Therefore, in order to grow soldiers that will bring victory from every fight against enemy during contingency, army is continuously working to strengthen moral, maintain strong military order, and conduct training to maximize combat power.

Combat power can be future classified into abstract and concrete combat power. Concrete combat power is composed of combat power that can be seen and touched, such as troop, weapons, equipment, material, and others. On the other hand, abstract combat power is combat power that does not have any form, however, the force really exists. It is composition of human physical, psychological capability and personnel inner values that comes from willing to win the battle.

Psychological capability, the heart of abstract combat power, can be defined as royalty, strong military order, moral, firm integration that forms around a commander to flexibly accomplish assigned missions.

The objective of this research, as one of measures to improve psychological capability of units, is to verify the importance of effects of extensive education on soldiers and tea drinking.

The inquiries of this research was to verify whether soldiers who received extensive education had different level of psychological capability than who did not? Did soldier group, who received extensive education, show different psychological capability level by their characteristics? Including questions given above, this research inquired other questions and it was done based on psychological capability measurement conducted by MND and personally conducted survey on 60 of soldier group.

Soldier group received an hour per time of total 8 extensive education program. After the education was completed, soldier group received t-verification.

Summary of this research is as follows:

1. Soldier group who received extensive education had more psychological improvement than those of whom did not.
2. Among soldier group who received extensive education, combatants had better psychological improvement than administrators. Thus, I have come to conclude that tea drinking improves soldiers psychological capability. By drinking tea, a commander can obtain immediate quickness and make accurate decisions. On the other hand, soldiers become more obedient to

commander's and senior officers' orders, responsible and dedicated. Furthermore, tea drinking will enhance psychological capability by right values by bringing sentimental and eliminating factors that effects service lift negatively such as, psychological calmness, fear, frustration, psychological confusion. Our ancestors have been praising the lift of tea drinking for long period of time. Scholars used to enjoy drinking teas with their fellows or by themselves; enjoying the mood and smell. When we look into historical literatures, during KORYU age the King presented a general who brought him extraordinary accomplishment, and presented teas to soothe family of soldiers who passed away in the battlefield. To our ancestors, tea drinking was a philosophy, way of life, courtesy and meant that one executed all the given tasks. Our national literature "CHOUI" - most high valued tea literature - stated that "tea is innocent as a virtuous man's temperament that is why sages enjoyed drinking teas from long time ago" to emphasize characteristics of Korean tea. CHOSUN age famous "JUNG YAK YONG" also stated that "if one nation drinks alcohol that nation will fall, on the other hand drinking tea will prosper the nation" to recommend to drink teas to live healthy life and think about future with shrewdness. Therefore in this rapidly changing society, tea drinking that allows to filter complicated emotions, look back the Korean past cultures such as, etiquette, respect, improvement of sentiment, and psychological level. I like to make following recommendations based upon my research.

1. There are needs to develop and research periodical and extensive

education program that our soldiers can easily apply to their life.

2. As experiences in armed forces never seem to be forgotten easily, taste of one cup of tea during service period will not be forgotten for lifetime and it will generate good force to improve tea drinking culture. That is why civilian tea drinking groups and individuals must focus and provide lots of support to armed forces, so that soldiers can receive good chance to experience tea drinking.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건강한 젊은이로서 군복무에 충실하고 있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보람있는 군생활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본 설문지는 우리 민족의 전통문화인 차문화가 군내
장병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설문에 대한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은 무기명으로 기입되며
본자료는 오직 학문적인 연구에만 사용되므로 여러분께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음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무궁한 행운과 건승이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4. 5.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대학원

지도교수 이 상 봉

연구자 전 종 수

문항		정말 그렇다	그런 편이다	반반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군 복무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2	나는 군 생활을 통하여 국가 안보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본다.					
3	나는 동생이나 후배들에게 현역 근무가 명예롭다고 말할 수 있다.					
4	나는 전투 임무를 자랑스럽게 수행할 것이다.					
5	나는 군인이 된 현재의 신분에 긍지를 느낀다.					
6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자랑스롭다.					
7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태어났으면 하고 바랄 때가 있다.					
8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9	외국에 이민을 가는 사람이 부러울 때가 있다.					
10	우리나라에서는 자신의 성실과 노력에 따라 공정한 댓가를 받을 수 있다.					
11	나라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12	죽을 것을 알면서도 적과 싸우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13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한다.					
14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열심히 일한다.					
15	남들이 하기 어려워하는 일을 앞장서서 한다.					

문	항	정말 그렇다	그런 편이다	반반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16	상관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한다.					
17	상관의 지시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복종하지 않아도 된다.					
18	군인은 정당한 명령과 지시에 복종해야 한다.					
19	군대에서 명령에 복종하게 되는 것은 처벌의 두려움 때문이다.					
20	할 수만 있다면 꿀탕을 먹고 싶은 상관이 있다.					
21	혼자서 규정을 지키려고 해 보았자 손해를 보는 곳이 군대이다.					
22	모든 규정을 다 지킨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23	혼자서 규칙을 지키려는 사람을 보면 한심한 생각이 든다.					
24	규칙이나 규정대로 하면 손해본다.					
25	규칙을 지키는 사람만 손해를 본다.					
26	하루하루가 지겹다.					
27	요즈음 괜히 짜증이 난다.					
28	요즈음 들어 부쩍 답답하다.					
29	다 때려 부수고 싶다.					
30	내가 하는 일에 신물이 난다.					

	문항	정말 그렇다	그런 편이다	반반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31	전반적으로 볼 때 내가 하는 일은 만족스럽다.					
32	내가 하는 일은 힘들지만 무척 보람이 있다.					
33	내가 맡은 임무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34	나에게 주어진 업무는 사회에서도 많은 도움이 된다.					
35	지금 내가 하는 일은 나에게 잘 맞는다.					
36	전투시 나에게 주어진 임무를 수행할 자신이 있다.					
37	어떤 전투상황에서라도 주어진 임무를 수행할 자신이 있다.					
38	아무리 어려운 훈련이라도 충분히 소화해낼 자신이 있다.					
39	전투에 필요한 능력과 기술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40	어떠한 적이라도 맞서 싸울 자신이 있다.					
41	동료들은 서로를 좋아한다.					
42	동료들은 서로 함께 잘 지낸다.					
43	동료들은 서로의 개인적 문제들을 도와준다.					
44	동료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 즐겁다.					
45	동료들은 서로 단결되어 있다.					

문	항	정말 그렇다	그런 편이다	반반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46	우리 부대가 자랑스럽다.					
47	우리 부대에는 자랑거리가 많다.					
48	이 부대에 소속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49	우리 부대는 좋은 특징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50	우리 부대는 전반적으로 훈련이 잘 되어 있다.					
51	우리 지휘관은 대체로 믿음직스럽다.					
52	우리 지휘관은 유능하다					
53	우리 지휘관은 불필요한 지시를 하지 않는다.					
54	우리 지휘관은 부대원들에 대해 잘 알고 있다.					
55	우리 지휘관은 어려운 일에 앞장선다.					

56 귀하의 연령은?

- ① 19세이하 ② 20세 ③ 21세 ④ 22세 ⑤ 23세이상

57 귀하의 최종학력은?

- ① 고졸 ② 대학(전문대)재학 ③ 대졸 ④ 대학원

58 귀하의 종교는?

- ① 기독교 ② 불교 ③ 천주교 ④ 기타 / 무교

59 귀하의 계급은?

- ① 이병 ② 일병 ③ 상병 ④ 병장

60 귀하의 직책은?

- ① 행정병 ② 전투병

<표-1> 효과 측정 문항

문항 번호	문 항
1	군 복무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2	나는 군 생활을 통하여 국가 안보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본다.
3	나는 동생이나 후배들에게 현역 군무가 명예롭다고 말할 수 있다.
4	나는 전투 임무를 자랑스럽게 수행할 것이다.
5	나는 군인이 된 현재의 신분에 긍지를 느낀다.
6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자랑스롭다.
7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태어났으면 하고 바랄 때가 있다.
8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9	외국에 이민을 가는 사람이 부러울 때가 있다.
10	우리나라에서는 자신의 성실과 노력에 따라 공정한 댓가를 받을
11	수 있다.
12	나라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13	죽을 것을 알면서도 적과 싸우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14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한다.
15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열심히 일한다.
16	남들이 하기 어려워하는 일을 앞장서서 한다.
17	상관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한다.
18	상관의 지시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복종하지 않아도 된다.
19	군인은 정당한 명령과 지시에 복종해야 한다.
20	군대에서 명령에 복종하게 되는 것은 처벌의 두려움 때문이다.
21	할 수만 있다면 골탕을 먹이고 싶은 상관이 있다.
22	혼자서 규정을 지키려고 해 보았자 손해를 보는 곳이 군대이다.
23	모든 규정을 다 지킨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24	혼자서 규칙을 지키려는 사람을 보면 한심한 생각이 든다.
25	규칙이나 규정대로 하면 손해본다.
26	규칙을 지키는 사람만 손해를 본다.
27	하루하루가 지겹다.
28	요즈음 괜히 짜증이 난다.
29	요즈음 들어 부쩍 답답하다.
30	다 때려 부수고 싶다.
	내가 하는 일에 신물이 난다.

문항 번호	문 항
31	전반적으로 볼 때 내가 하는 일은 만족스럽다.
32	내가 하는 일은 힘들지만 무척 보람이 있다.
33	내가 맡은 임무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34	나에게 주어진 업무는 사회에서도 많은 도움이 된다.
35	지금 내가 하는 일은 나에게 잘 맞는다.
36	전투시 나에게 주어진 임무를 수행할 자신이 있다.
37	어떤 전투상황에서라도 주어진 임무를 수행할 자신이 있다.
38	아무리 어려운 훈련이라도 충분히 소화해낼 자신이 있다.
39	전투에 필요한 능력과 기술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40	어떠한 적이라도 맞서 싸울 자신이 있다.
41	동료들은 서로를 좋아한다.
42	동료들은 서로 함께 잘 지낸다.
43	동료들은 서로의 개인적 문제들을 도와준다.
44	동료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 즐겁다.
45	동료들은 서로 단결되어 있다.
46	우리 부대가 자랑스럽다.
47	우리 부대에는 자랑거리가 많다.
48	이 부대에 소속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49	우리 부대는 좋은 특징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50	우리 부대는 전반적으로 훈련이 잘 되어 있다.
51	우리 지휘관은 대체로 믿음직스럽다.
52	우리 지휘관은 유능하다
53	우리 지휘관은 불필요한 지시를 하지 않는다.
54	우리 지휘관은 부대원들에 대해 잘 알고 있다.
55	우리 지휘관은 어려운 일에 앞장선다.

<표-2> 영역별 평가항목

구분	문항	문항수
<p>군인 정신</p>	<p>군 복무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나는 군 생활을 통하여 국가 안보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본다. 나는 동생이나 후배들에게 현역 군무가 명예롭다고 말할 수 있다. 나는 전투 임무를 자랑스럽게 수행할 것이다. 나는 군인이 된 현재의 신분에 긍지를 느낀다.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자랑스롭다.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태어났으면 하고 바랄 때가 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외국에 이민을 가는 사람이 부러울 때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자신의 성실과 노력에 따라 공정한 댓가를 받을 수 있다. 나라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죽을 것을 알면서도 적과 싸우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한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열심히 일한다. 남들이 하기 어려워하는 일을 앞장서서 한다.</p>	<p>15</p>
<p>군기</p>	<p>상관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한다. 상관의 지시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복종하지 않아도 된다. 군인은 정당한 명령과 지시에 복종해야 한다. 군대에서 명령에 복종하게 되는 것은 처벌의 두려움 때문이다. 할 수만 있다면 꿀탕을 먹이고 싶은 상관이 있다. 혼자서 규정을 지키려고 해 보았자 손해를 보는 곳이 군대이다. 모든 규정을 다 지킨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혼자서 규칙을 지키려는 사람을 보면 한심한 생각이 든다. 규칙이나 규정대로 하면 손해본다. 규칙을 지키는 사람만 손해를 본다.</p>	<p>10</p>

구 분	문 항	문항수
사 기	<p>하루하루가 지겹다. 요즈음 괜히 짜증이 난다. 요즈음 들어 부쩍 답답하다. 다 때려 부수고 싶다. 내가 하는 일에 신물이 난다. 전반적으로 볼 때 내가 하는 일은 만족스럽다. 내가 하는 일은 힘들지만 무척 보람이 있다. 내가 맡은 임무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나에게 주어진 업무는 사회에서도 많은 도움이 된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은 나에게 잘 맞는다. 전투시 나에게 주어진 임무를 수행할 자신이 있다. 어떤 전투상황에서라도 주어진 임무를 수행할 자신이 있다. 아무리 어려운 훈련이라도 충분히 소화해낼 자신이 있다. 전투에 필요한 능력과 기술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어떠한 적이라도 맞서 싸울 자신이 있다.</p>	15
단 결	<p>동료들은 서로를 좋아한다. 동료들은 서로 함께 잘 지낸다. 동료들은 서로의 개인적 문제들을 도와준다. 동료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 즐겁다. 동료들은 서로 단결되어 있다. 우리 부대가 자랑스럽다. 우리 부대에는 자랑거리가 많다. 이 부대에 소속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우리 부대는 좋은 특징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우리 부대는 전반적으로 훈련이 잘 되어 있다. 우리 지휘관은 대체로 믿음직스럽다. 우리 지휘관은 유능하다 우리 지휘관은 불필요한 지시를 하지 않는다. 우리 지휘관은 부대원들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우리 지휘관은 어려운 일에 앞장선다.</p>	15

<표-3> 다도교육 프로그램

구 분	소요 시간(분)	분 야	세 부 내 용	비 고
1주차	50	차의정의	다도의정의 차나무의 특성 차례와전통문화 차의분류 제다방법 차의역사	강의
	50	茶香	차의 일반적 소개	VTR
2주차	100	차의효능	차의 효소성분과 생화학 차의 보건학적 효능 차와 건전한 생활	강의 / VTR
3주차	20	다기구설명 / 차달이는 법	다기구의 종류설명 다기구사용방법 찾물 달이는 방법 차를 달이는 방법	강의
	80	행다실습	다구를 이용해 차를 우려내는 과정 차 음다법과 실용예절 차기구 정리하기 차생활 / 전통생활 예절	실습
4주차	80	행다실습	다구를 이용해 차를 우려내는 과정 차 음다법과 실용예절 차기구 정리하기 차생활 / 전통생활 예절 다기구를 이용해 차를 우려내는 과정 차 음다법 찾잔 씻어 정리하기	실습
	20	차생활의 멋	차와 명상 차의 예술적 감상 차기구의 예술적 감상	강의